

朝鮮時代 象嵌白磁의 編年 研究

權 素 玄*

- I. 머리말
- II. 象嵌白磁의 편년자료와 요지 출토품
- III. 象嵌白磁의 형식분석: 문양소재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 IV. 象嵌白磁의 양식변천에 따른 편년고찰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15세기의 도자는 고려말 퇴락한 상감청자의 제작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한 粉靑沙器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제작된 조선백자가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청자의 전통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순청자와 상감청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고 특히 중국, 일본, 유구 등으로부터 유입된 중국 청화백자가 왕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조선 15세기는 고려 도자의 맥이 계속되는 한편, 새로운 중국 도자의 영향이 유입되면서도 매우 한국적인 도자양식이 성립되는 복잡하고도 중요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백자의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청자와 함께 이어져 온 것으로 고려백자는 청자에 비해 소량만이 제작되었지만, 소문·음각·상형뿐 아니라 상감백자로도 제작되었다. 비록 고려 상감백자는 상감청자만큼 양산되지는 않았으나,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전반에 걸쳐 고려 상감청자의 문양, 표현기법과 큰 차이없이 제작되어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 이후 상감백자는 사라지고 소문백자만이 일부 제작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고려백자 계통을 잇는 軟質白磁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중국 원·명초의 백자에 가까운 硬質白磁가 모두 존재한다.¹ 그러나 백자의 주류가 되었던 것은 역시 경질백자계열로서 이것이 조선시대 백자의 기반이 되고 있다. 조선백자에는 아무런 장식 없이 소문백자와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백자 등과 함께 상감백자가 제작되었는데, 이는 고려시대로부터 상감기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조선백자의 한 종류로 제작된 것이다.

상감기법은 고려 도자에서 가장 독창적인 특징의 하나로, 나전칠기 혹은 금속기의 입사기법에서 힌트를 얻어 청자, 백자에 사용된 시문기법이다. 12세기 중엽경부터 도자기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13-14세기를 거쳐 조선조에 들어와 분청사기에서도 많은 양의 상감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² 조선조에 들어와 분청사기에는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는 예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 속에서 조선 상감백자의 제작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현존하는 상감백자와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상감백자편을 대상으로 상감백자가 갖는 독특한 특징을 살펴본 뒤, 상감백자의 편년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상감백자는 제작된 시기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조선 도자의 특정한 시기와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한 획을 그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상감백자의 생산과 소멸을 통해 그 당시 도자의 생산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¹ 14세기 가마터로 알려진 경기도 안양 石水洞 가마에서는 태토가 무른 연질백자뿐만 아니라 경질의 단단한 태토를 지닌 백자편도 함께 발견되었다. 鄭良模, 「冠岳山 高麗窯址」,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p. 291-325.

² 고려 도자의 상감기법 발생시기는 始原의 형태의 상감기법이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정양모 선생은 「靑磁象嵌 발생의 側面的 考察」(『한국의 도자기』(문예출판사, 1991), p. 243)에서 상감문이 일반화되는 초기 단계로서의 상감 발생시기 외에 용인 서리 등 일부 가마터에서 발견된 상감편 등의 예를 언급하였으며, 金載悅 선생은 「高麗陶磁의 象嵌技法 發生에 관한 一考察」(『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호) pp. 56-85에서 原(proto)象嵌文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상감문이 일반화되는 처음 시기를 발생시기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II. 象嵌白磁의 편년자료와 요지 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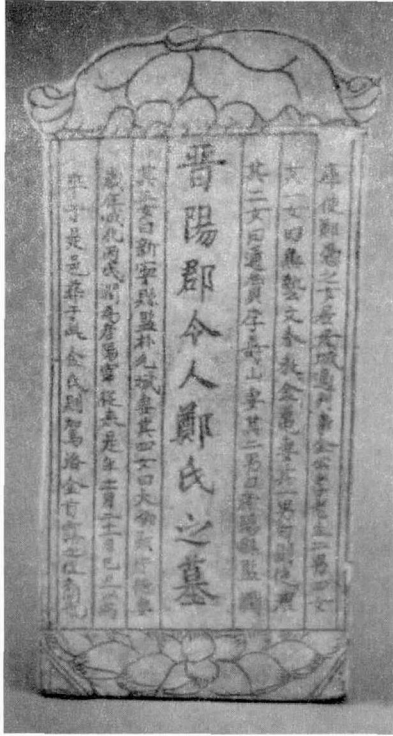
조선시대 상감백자는 조선 전기 백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면모와 성격을 살펴보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상감백자를 다량 생산한 가마는 물론이거니와 절대편년을 갖는 자료도 거의 없으며, 연구 또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³ 그러나 본 장에서는 부족하나마 우선적으로 절대편년을 갖는 상감백자를 소개하고, 요지에서 출토되는 부분적인 자료로서 상감백자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편년자료

1) 晉陽郡令人鄭氏墓 출토 象嵌白磁墓誌 및 扁瓶

慶尙道 彦陽 현감을 지낸 金潤의 어머니 晉陽郡令人 鄭氏의 묘(현 경남 거창군 북상면)에서 白磁象嵌墓誌와 白磁象嵌草花文扁瓶이 白磁耳附蓋托, 백자대접, 백자접시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우선 〈白磁象嵌墓誌〉도1를 보면, 墓誌板의 형식은 장방형으로 그 상단부에 蓮葉形을 얹어 씌운 형상, 즉 位牌形으로 상·하단부가 연꽃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胎土는 軟質로 유연한 맛이 있고 유약은 미세한 빙렬이 있다. 앞면 위쪽의 연잎은 선상감된 葉脈으로 더욱 형태를 명확히 했으며, 아래쪽의 직사각형 공간에는 좌우 양 귀에 2개의 斜線을 象嵌하고 그 안에 역시 만개한 연꽃잎을 상감하였다. 상하단 사이 묘지 중앙의 직사각형 위패는 총 7행의 칸으로 수직되게 선상감하고 각 칸 안에 명문을 楷書해 넣었다. 중앙의 넓은 행간에는

³ 조선시대 상감백자의 연구는 조선백자의 한 종류로서만 언급되는 정도로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 본 학자들이 조선 상감백자의 존재와 연대, 요지 등에 관한 간단한 知見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양모·강경숙·윤용이 선생은 상감백자의 질과 제작기간, 제작지역 등 제작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만을 하였다(고모토 후쿠지(香本不若治) 編, 『白磁』, 『陶器講座』 9 朝鮮 II · 李朝(雄山閣, 1976), pp. 240-242;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教), 『陶器全集』 17 李朝(平凡社, 1965), pp. 3-4; 鄭良謨, 『白磁論』, 『白磁』 韓國의 美 2(中央日報社, 1978), p. 194; 『白磁論』,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 447;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 349-369; 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二): 廣州一帶 陶窯址를 中心으로』, 『考古美術』 151(韓國美術史學會, 1981), p. 51). 그러나 김영원 선생은 이러한 단편적인 언급을 넘어 분청사기와 상감백자의 문양, 구도, 기형을 비교·분석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상감백자를 고찰하였다(金英媛, 『朝鮮前期 粉靑과 象嵌白磁에 관한 研究』, 『考古美術』 153(韓國美術史學會, 1982), pp. 1-19).



도1 백자상감묘지, 진양군정씨묘 출토, 1466년, 호암미술관



도2 백자상감초화문편병, 진양군정씨묘 출토, 높이 22.1cm, 호암미술관

“晉陽郡令人鄭氏之墓”라는 銘文을 큰 글씨로 새기고 좌우의 각 3행에는 가계와 자녀의 수, 몰년 등 정씨의 行狀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다.⁴

뒷면도 거의 앞면과 같은 의장을 象嵌하고 있으나, 銘文은 없고 앞면의 의장에 비해서 다소 약화된 표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르다. 앞면의 誌文에 의하면 彥陽 현감이었던 金潤

⁴ 誌文은 상하로 중심부에 총 7행간으로 된 硃線을 상감하고 그 硃線 안에 명문을 楷書해 넣었다. 중앙의 넓은 행간에 “晉陽郡令人鄭氏之墓”라 題記하고 오른쪽으로부터 제1행간에 “庫使鄭憑之女居丹城適判事金公孝老生二男四女”, 제2행간에 “其一女曰兼藝文奉教金龜妻 其一男曰副使漕”, 제3행간에 “其二女曰通贊李壽山妻 其二男曰彥陽縣監潤”, 제5행간에 “其三女曰新寧縣監朴允斌妻 其四女曰大鄉鄭守德妻”, 제6행간과 제7행간에 걸쳐서는 “歲在成化丙戌潤爲彥陽宰從來是年十一月二十一日己丑以病卒于是邑葬于此金氏則駕洛金首露之後裔也”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墓誌의 주인되는 鄭氏의 사망경위를 밝히고 아울러 紀年銘을 명시하고 있다. 崔淳雨, 『晉陽郡令人鄭氏墓出土 白磁象嵌類』, 『美術資料』 8호(1963.12)(『兮谷崔淳雨全集』(학고재, 1992), pp. 358-364에 재수록).

의 어머니인 鄭氏의 沒年이 成化 2년(세조 11, 1466)이라고 되어 있어 함께 출토된 백자의 제작연대를 알 수 있다.

〈白磁象嵌草花文扁瓶〉도2은 원뿔대 모양의 구연과 받침, 원관 모양의 동체가 특이한 모습을 이룬다. 병의 胴體도 거의 正圓에 가까우나 측면으로 갈수록 얇아지면서 그대로 변두리는 날이 서있는 마치 운동구인 원반 같은 특이한 형식을 가진다. 푸른기가 약간 있는 투명한 백자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담황색을 띠고 미세한 빙렬이 퍼져 있으며 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軟質白磁이다.

편평한 동체 중앙의 흑상감문은 양면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에 두 줄 한쌍의 둥근 테를 돌려 문양대를 구획한 후, 중앙에는 간략화된 꽃무늬를 두고 바깥에는 연당초문 내지 모란 당초문을 변형한 초화문을 이중선으로 시문하고 있다. 굽다리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간략화된 선묘표현의 연꽃 한 송이가 있는데, 상감백자묘지에서의 하단부 묘사와 비슷해 보인다. 언양지방 또는 경상도 일원의 백자가마에서 번조되었으리라고 짐작되며 경기도 광주지방 관요에서 구워낸 견고하고 치밀한 백자에 그려진 문양과는 차이가 있다. 동반유물인 〈백자 흑상감묘지〉의 銘文에 의해 이 扁瓶 역시 성화병술년(1466)경의 제작품을 알 수 있으며, 묘지를 제외하고 연대가 분명한 조선 상감백자의 유일한 예이다.

2) 白磁象嵌太一殿銘草花文蓋托

이 蓋托은 절대 편년자료로서의 역할은 못하지만, 托으로 사용된 접시 내면에 “太一殿”이라는 명문이 흑상감으로 남아 있어 편년추정의 근거를 제시해준다도3. 유조와 유색은 뛰어나지 못하나 온아한 녹색을 띠는 백자유에 세밀한 빙렬이 있는 고려백자류의 유약이 비교적 두텁게 씌워져 있는 軟質白磁이다.

蓋은 구연이 내만형이고 釉藥은 황색을 띤 백색이며 全面에 가는 빙렬이 있고 굽은 모래섞인 내화토받침으로 받쳤다. 외측면 상하에 각각 二條線을 두르고 넓은 공간에 좌우로 퍼지는 이중선의 간략화된 초화문을 두 곳에 배치하였다. 托은 구연외반의 접시로 역시 모래섞인 내화토받침이며 포개구이를 한 흔적이 있다. 내측에 “太一殿”이란 銘文이 象嵌되어 있고 굽 안바닥에는 ‘十’자가 음각되어 있다. 아마도 이 잔탁은 태일전에서 사용한 제사에 필요한 의기의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도3-1.5

5 태종 17년(1417)에는 공납하는 砂木器에 각 해당 관청의 司號를 새겨 상납하도록 하였는데, 적어도 〈태일전명잔탁〉은 이 조치 이후, 관청 공납용이었던 것 같다.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條.

太一殿은 太一에 제사를 지내는 전각으로서 太一에 제사를 지내는 太一醮의 起源은 중국 漢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후⁶ 대대로 역대에서 만들어 섬기었다. 고려에서도 태일이 머무르는 궁마다 따로 전각(大清觀)을 세워 초례를 행하여 액운과 재변을 막고자 하였으며 出戰 등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초례를 베푼 연후에 행하였다고 전한다.⁷

太一은 하늘의 貴神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섬겼는데, 어진 별이라 하여 太一星이라고도 하였다.⁸ 이 太一星이 머무르는 궁은 건방, 간방, 손방, 곤방, 중궁의 다섯 방위를 따라 움직이는데, 매궁마다 45년 동안 머무른다고 한다.⁹ 고려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태일성이 머무르는 궁에 전각을 세우고 궁관을 두어 초례를 지내게 하였는데, 왕조실록에 태일성의 이동에 따라 遷宮의 지역을 논하는 기록들이 보인다.

성종 7년(1476) 8월 갑오조에 우승지 임사홍이 이르기를

…… 태일성은 45년만에 그 방위를 옮기는 데 고려는 통천에서 제사하였고 국조에 이



도 3 백자상감태일전명초화문잔탁.
높이 5.6cm, 입지름 10.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1 도 3의 접시, 높이 4.1cm, 입지름 16.0cm

⁶ 上元日에 太一을 제사지내기 위해 대궐 안에 연등을 매달았는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예조참의 許調에게 古典에 상고하여 아뢰도록 한 기록이 있다. 이에 許調가 이르기를 “『文獻通考』에 상고하여도 없고 오직 前朝 때 詳定禮에만 나와 있는데, 그 起原은 漢나라에서 太一을 제사지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1412) 1月 庚子條, “…… 張燈于禁中以 上元日祀太一也內資內瞻寺各進紙燈五百又雜以龍鳳虎豹之狀者亦多初 上欲張燈於十五日召禮曹參議許稠考諸古典問於河崙以開稠啓曰古文獻通考無之 唯出於前朝詳定豫其原則自漢 太一而始也”).

르러서는 갑인년(1434년)이 45년째가 되므로 의성에 옮겨서 제사하였습니다. 갑인년으로부터 무술년(1478년)에 이르면 또한 45년째가 되므로 마땅히 곧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소격서에서는 마니산이 곧방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는 옛 글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다만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 의성으로 옮겼을 때의 문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어찌 그 장소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풍수학 교수 최호원은 마니산이 곧방이 아니라고 하니 청컨대 근정전 뜰에서 사방을 상고하여 헤아려서 정하되 최호원으로 하여금 상고해서 헤아리게 한 뒤에 그 가부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¹⁰

라고 하여 풍수학 교수 최호원에게 태일성 초제 장소를 상고하여 가부를 논하게 하고 있다. 이어 같은해 8월 기해조에 또 우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 최호원이 신에게 말하기를 방위를 헤아려보니 마니산은 태방이고 충청도의 태안이 진실로 곧방이므로 태일성의 제사를 태안군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으니 청컨대 옛날의 전적을 널리 상고하도록 하소서 …….¹¹

라고 하여 태안이 태일초를 지낼 장소로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성종연간에는 태일성의 천궁에 따라 태일 초례를 지내기 위한 궁관을 세울 위치 선정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 곳에 보인다. 통천, 의성에 이어 태일전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7 『太宗實錄』卷7 太宗 4年(1404) 二月 辛卯條, “…… 命義知禮曹事金瞻詳定星宿醮禮瞻欲修大清觀醮天皇大帝判事權近與諸郎皆不可曰本朝既立昭格殿醮星宿矣又何用修大清觀乎河崙聞之曰瞻見道不明故好奇怪瞻又上書勤 上崇奉道教其書曰太一天之貴神自漢以來歷代奉事屢獲嘉詳是以前朝宜福源宮昭格殿淨事色別建大清觀又於艮巽坤乾方遂所次之宮營建宮觀以行醮禮而每當厄運及災變則行祈禱別醮於大清觀若行兵則將帥詣大清觀齋宿設醮而後行蓋以太一仁星所在之地兵疫不興邦國又安故也.”

8 『太宗實錄』卷7 太宗 4年(1404) 二月 辛卯條, 앞의 註7 참조.

9 『成宗實錄』卷77 成宗 8年 閏 2月 丙辰條, “…… 太一星遷宮之事問中朝道士皆答以不知 …… 太一自乾而艮而巽而坤而乾而中宮 每宮住四十五年 …….”

10 『成宗實錄』卷70 成宗 7年 閏 8月 甲午條, “…… 太一星四十五年則遷其方任前朝祠於通川至國朝甲寅乃四十五年故徙於義城自甲寅至戊戌則又四十五年當徙坤方昭格署以摩尼山爲坤方此非據舊文特憶度之言也初徙義城文籍猶存豈不明言其所風水學校授崔灝元云摩尼山非坤方請於動政殿庭占度四方以定之令灝元占度然後議其可否何如 …….”

11 『成宗實錄』卷70 成宗 7年 8月 己亥條, “…… 崔灝元言臣占度方位摩尼山乃充方忠清道泰安眞坤方也太一使宜徙泰安郡然不可信請博考古籍 …….”

있는데 성종 8년(1477)에도 역시 태일전을 옮겨 세울 장소로 태안이 거론되었다.

…… 太一殿을 옮겨 세우는 데에 마땅한 坤方은 충청도 泰安의 白華山 서남쪽 高城寺 북쪽의 높고 평평한 곳에 있으며 京城과의 거리가 삼백삼십 리라 하니 청컨대 工曹로 하여금 營建하게 하소서 ……¹²

라고 적고 있으며, 『東國輿地勝覽』¹³과 『大典會通』의 기록 등에서¹⁴ 성종 10년인 성화 14년(1478)에는 경상도 의성에서 충청도 태안으로 태일전이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헌기록을 통해서 볼 때, 태일전에서 지내는 초례는 고려에서부터 조선 1434년에 이르기까지는 良方인 강원도 통천에서 이루어졌고, 갑인년(1434)으로부터 45년째가 되는 무술년(1478)까지는 경북 의성에 옮겨서 제사하였는데, 무술년(1478)에 이르면 충청도 태안에서 태일초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 잔탁이 경상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말이 있는데¹⁵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태일전이 경상도 의성에 있었을 때 태일전에서 사용된 의기였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그 제작시기는 1434년과 1478년의 사이에 놓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잔에 二重線으로 그려진 간략화·추상화된 초화문은 1466년으로 편년이 확실한 자료인 晋陽郡 鄭氏墓 출토의 <백자상감초화문편병>도²와 시문수법이 매우 비슷하고, 이 두 상감백자가 軟質白磁라는 점은 경상도 지역의 가마에서 나오는 상감백자가 모두 軟質인 것과 공통되므로 제작시기에 대한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아마도 <백자상감태일전명잔탁>은 太一殿이 慶尙道 義城에 있을 때 그 주변의 요에서 관청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2 『成宗實錄』 卷81 成宗 8年 六月 丙申條, “…… 今據前觀象監正李宗啟啓本太一殿移建可當建方在忠清道泰安白華山兩南高城寺此高來處距京城三百三十里請令工曹營建 ……”

13 『東國輿地勝覽』 권25 義城縣 古蹟條, “…… 在水穴傍 每歲上元 降香以祭 成化十四年戊戌移忠清道 泰安郡 ……”; 『東國輿地勝覽』 권19 泰安縣 祠基條, “…… 在白華山古城內成宗十年己亥自慶尙道義城縣移安于此 ……”

14 『大典會通』 卷1 吏典 外官職 忠清道條(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0).

15 崔淳雨, 「太一殿銘朝鮮白磁象嵌」, 『考古美術』 50(1964.9)(『兮谷崔淳雨全集』 제1권(학고재, 1992), pp. 347-348에 재수록).

3) 成化3年尹增銘 白磁象嵌墓誌

장방형의 경질백자로 성화 3년(1467)의 기년자료인 윤증명묘지는 象嵌硬質白磁의 下限에 가까운 자료이다. 묘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되어진 연대에 의해 묘주의 이력은 물론 묘지 자체의 분명한 연대를 밝힐 수 있는 동시에 그 기법까지도 살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편년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상감백자묘지는 도 1의 1466년명 묘지와 비교하면 문양장식적인 면에서 특수한 면을 찾기 어려운 단순한 묘지에 불과하지만, 백자에 상감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상감백자의 중요한 편년자료 역할을 한다.

2. 요지 출토품

이상에서처럼 상감백자는 절대 편년자료가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1460년대의 것이어서 15세기를 총망라하는 양상, 특히 이 시기 이전인 15세기 전·중반의 상감백자의 양상을 말해주는 분명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감백자의 편년고찰을 위해서는 요지에서 출토되는 상감백자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 이 요지들의 편년에 준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요지들의 편년조차도 단정적 결론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상감백자의 편년을 여기에 기대는 것이 모순과 한계를 수반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요지 출토 상감백자의 문양 등을 살펴보고, 상감백자를 포함한 요지 출토 도자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하여 그 개략적인 상대 편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朝鮮時代 象嵌白磁를 出土하는 窯址는 대부분 경기도 광주 일대의 初期 白磁가마이며 경상도의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상감백자편이 출토되었다.¹⁶ 이들 가마에서 나오는 상감백

¹⁶ 경기도 광주 지역에 관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의해 가능하다. 지표조사 보고서로는 鄭良謨·尹龍二·金得豊, 『韓國白磁陶窯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廣州의 白磁窯址(I)』(海剛陶磁美術館, 1992);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査報告書』圖版篇(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8) 등이 있고 발굴조사 보고서로는 『廣州朝鮮白磁窯址발굴조사보고: 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한국도로공사, 1986);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 附 廣州牛山里 9號窯址發掘調査報告』,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특별전 도록 21(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발굴조사 보고서: 도마리 1호 요지』(국립중앙박물관, 1995);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해강도자미술관·천진암성역화위원회, 1995);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II): 17호 백자요지 시굴조사보고서』(해강도자미술관, 1999); 『廣州 建業里 朝鮮白磁 窯址: 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보고서』(해강도자미술관, 2000) 등이 있다. 아직 未刊이긴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번천리 9호 가마도 이미 발굴조사되었다. 경상도 지역 가마터에 대해

자들은 완형은 말할 것도 없고 굽과 구연을 모두 갖춘 파편도 발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형이 불분명한 것도 많고, 문양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

경기도 광주 武甲里에서 발견된 한 점의 상감백자편은 끝이 뾰족한 연꽃의 윤곽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線象嵌하고 그 花瓣의 끝을 부분 面象嵌하여 흑색이 짙게 보인다. 조선시대 상감백자의 기법적 특징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경기도 광주 일대의 백자가마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양양식은 牛山里 17호 가마에서 수습된 대접편에서 보이는 당초문으로 이 유형이 牛山里 일대와 樊川里, 建業里 등에서도 많이 보인다. 그외에는 꽃의 형상이 사라지고 주위의 덩쿨만 남아 있는 것이 있다.

草葉文系列은 넓은 잎이 남아 있어 그냥 포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線만으로 잎을 표현한 것도 있고 線廓 안을 면상감으로 채운 대접, 향아리片 등도 있다. 이외 동물문으로서 유일하게 도안화된 물고기가 점묘 내지 單線으로 표현된 향아리, 瓶片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鶴東里에서 지표수습된 破片 중에 국화문이 찍혀 있는 인화문향아리편이 있고,¹⁷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998년 발굴조사한 樊川里 9호 가마에서는 瓶의 목부분으로 보이는 파편에 單線文으로 채워진 줄기가 구불거리며 위로 뻗는 듯한 문양이 상감된 것이 나왔다.¹⁸

한편, 京畿道 廣州 일대의 백자가마가 아닌 慶尙道 지역에서 아주 소수의 象嵌白磁片이 발견되었다. 慶尙道 山淸의 放牧里와 河東의 白蓮里 지표조사 수습품 중에 唐草文 1유형에 속한다고 보이나 아주 조잡해지고 간략화된 蓮唐草文 대접片과 草文이 시문된 小대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후 하동 백련리의 발굴조사에서는 황선문이 있는 상감백자편이 발견되었다.¹⁹ 이상을 정리하면 <표 1> 요지 출토별 상감백자편의 양상과 같다.

지금까지 窯址 출토 象嵌白磁片들의 전체적인 樣相을 서술하였는데, 상감백자가 출토되는 이 백자가마의 전반적인 특징과 양상을 살펴 이 요지들의 編年을 추정함으로써 상감백자의 문양양식이 변해가는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감백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京畿道 廣州 일대의 窯址에서이다. 그 중에서 발굴조사된













서는 지표조사 보고서로 『慶南地域 陶窯址 調査報告: 河東郡을 中心으로』(國立慶州博物館·慶尙南道 河東郡, 1985)가 있고 발굴조사 보고서로는 『山淸 放牧里 白磁窯址』(부산대학교박물관, 2000)이 있으며, 하동 백련리 도요지 발굴조사에 대한 지도위원회의자료(2001.11.26)가 있다.

¹⁷ 이 破片은 姜敬淑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京畿道 廣州 鶴東里에서 수습한 것을 제공해주신 것이다.

¹⁸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번천리 9호 조선백자도요지 확장시굴조사 현상설명회 회의자료』(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8년 10월 25일)의 내용과 사진을 참고로 한 것이다.

¹⁹ 註16 참조.

표 1 요지 출토별 상감백자편의 양상

문 양 요지		문 양					
		당초문 1	당초문 2	당초문 3	초(엽)문	어문	기타
경기도 광주	우산리 2호						
	우산리 17호						
	변천리 9호						
	무갑리						
	목현리						
	학동리						
	건업리						
경상도	산청 방목리						
	하동 백련리						

牛山里 2호·17호와 樊川里 9호를 중심으로 이 일대 가마터의 양상을 통해 象嵌白磁의 位置를 導出해 내고자 한다. 우선 牛山里 가마는 가장 많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약 20여 개소의 가마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牛山里에 所在한 여러 개의 가마들 중에서 가장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우산리 1호 가마에서는 깔끔한 硬質白磁와 회색빛이 나는 粗質白磁, 靑磁 등이 포개구이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1호 가마는 그 수습품들을 보아 우산리지역 가마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도자기 제작양상을 보여주는 가마라고 생각된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2호 가마에서도 雪白磁와 粗質의 灰白磁, 靑磁, 象嵌靑磁 등 거의 포개구이 방법으로 제작된 도자기가 확인되었다. 또 이들과 인접 위치한 實村面 建業里를 조사한 결과 象嵌白磁, 素文白磁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가마군과는 분포위치에서도 수습유물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牛山里 4호, 5호, 17호, 20호의 가마에서는 雪白磁, 靑磁, 象嵌靑磁와 함께 司, 內, 王, 中, 仁 등과 같은 명문이 있는 파편들이 보이고 다양한 기종이 확인된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던 17호 요지를 살펴보면 대접, 접시, 전접시, 종자, 마상배, 병, 항아리, 대반 등의 기종이 있고 비교적 粗質系 상변백자를 생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두 지역의 가마터들과는 달리 수습유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요지군이 牛山里 9호 가마를 중심으로 분포된 가마들이다. 우산리 9호는 발굴조사에 의해 보고된 가마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경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官窯임이 밝혀졌다.²⁰ 그 양상을 살펴보면 白磁와 靑磁뿐 아니라 靑畫白磁도 발견되었으며, 天·地·玄·黃과 같은 음각 명문을 새긴 고급백자를 생산했던 가마이다. 이들에 대한 성격과 수습유물에 대한 특징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²¹ 이 우산리 일대 20개소 가마의 운영시기에 관해서는 異見이 있어 명확히 어떤 시기라고 규정짓기 힘든 면이 없지 않다. 우산리 2호의 경우 막연히 15세기 전반경이라고 규정하였지만, 동반 출토 명문유물이 內用명 백자편을 가지고 1389년에서 1417년 사이의 운영시기를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²²

20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附 廣州牛山里 9號窯址 發掘 調査報告』(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21 이 표는 발굴조사자에 의한 판단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II)-17호 백자요지 試掘調査報告書』(1999), pp. 12-15.

22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學研文化社, 1995), pp. 73-74.

표 2 경기도 광주 우산리 20개소의 요지군 분류

	I군		II군		III군		
우산리 가마 분포상황	2호 (발굴조사)	1·3· 18·19호	17호 (발굴조사)	4·5·20호	9호 (발굴조사)	12호	6·7·8·10·11· 13·14·15·16호
출토 유물	백자 청자 상감청자 상감백자		백자 청자 상감청자 상감백자		백자(고급백자) 청자 청화백자		포개구이를 한 粗質系의 백자
	상감백자가 확인되지 않음						
특징 및 명문	內用 銘 백자		司·內·王·中·仁 銘文 파편		天·地·玄·黃 음각 명문		
운영시기	15세기 전반경		15세기 중반경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경		

象嵌白磁片이 나오는 곳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樊川리 9호 가마가 있다. 아직 보고서는 未刊이지만 略報告書에 의하면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순백자로서 上·中·下品이 공존하며 上品 가운데는 天·地·玄·黃의 명문이 있는 것이 포함되었고 예리하게 굽을 깎고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고 한다. 발, 완, 접시 외에 향아리, 병, 대발, 양이잔, 각잔 등이 출토되었고 청화백자가 소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중국산 청화백자편도 보이고 청자도 나왔다. 정확한 편년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우산리 9호와 비슷하므로 15세기 후반경이거나 이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일 것으로 생각된다.²³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의 편년에 관해서는 선학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 왔다. 현재로서는 우산리 백자가마가 1424년에서 1432년 사이에 조사된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자기소인 所山에 해당하는 가마라는 것은 이론이 없다.

鄭良謨 선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²⁴ 수록된 광주의 도기소·자기소 7개소 중 州東

²³ 註18 참조.

²⁴ 『世宗實錄』 「地理志」는 세종의 명에 의하여 世宗 6년(1424)부터 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世宗 14년(1432)에 집성이 완료되었으며, 독립된 책으로 印頒되지 않고 史草의인 존재로 남아 있다가 이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된 실록 편찬 담당자들에 의하여 『世宗實錄』이 완간된 端宗 2년(1454)에 실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대내적인 통치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磁器所, 陶器所의 내용이 적힌 土産條의 내용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I)」, 『歷史學報』 제69집(歷史學會,

伐乙川(上品)과 역시 州東 所山(下品)을 현재 번천리와 우산리로 비정하여, 이 지역에 있는 수십 개소의 백자가마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²⁵ 「지리지」가 편찬되기 이전 가마에서는 白磁와 象嵌白磁가 발견되고 일부 가마에서 粗質靑磁와 함께 발견되며, 「지리지」 편찬 당대이거나 그 이후로 계속되는 가마에서는 백자와 청화백자·청자는 발견되지만 상감백자의 발견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尹龍二 선생은 廣州지방에 관영사기제조장으로서 분원이 설치되기 전인 15세기 전반경에는 상감 및 인화분청사기를 제작하던 분청사기 요지와 함께 흑상감백자 등을 포함한 초기의 백자요지가 번천리, 우산리, 목현리 일대에 있었다고 하였다.²⁶

본고에서 살펴본 바로도 경기도 광주지역의 상감백자가 나오는 가마들 중 牛山里에서는 상감백자가 천·지·현·황의 명문유물들과 함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樊川里·道馬里·武甲里 등에서는 천·지·현·황 명문이 나오고 청화백자가 제작되는 15세기 후반 이후의 가마에서도 상감백자를 제작하고 있었지만 그 양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감백자에 시문된 문양소재나 그 유형도 15세기 전·중반의 선행하는 시기의 당초문 2유형, 3유형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결국 상감백자는 광주에 분원이 설립된 1470년경을 전후로 하여 15세기 전·중반과 후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편년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경기도 광주지역 백자가마에서의 상감백자는 소멸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⁷ 요지 출토 유물의 전반적인 양상 속에서 볼 때, 象嵌白磁의 제작은 靑畫白磁와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화백자의 제작이 증가하면서 상감백자의 제작이 감소·소멸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상대적인 관계를 시사해준다.

분원 설치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각 지역 분청사기 가마터의 제작양상도 변화하여 백토 분장법에 의한 분청사기가 많아지거나 백자를 생산하는 양이 증가하고 청화·철화백자의 영향으로 보이는 鐵畫粉靑沙器가 15세기 후반경부터 지방색을 띠고 발전하는 등 15세기 전·중반경의 다종다양한 도자 양상과 달리 백자적 경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²⁸ 따라서 15세기 전·중반에 제작되었던 상감백자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광주지역 가마의 성

1976.3), pp. 66-67;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Ⅱ·完)』, 『歷史學報』 제70집(歷史學會, 1976.6), pp. 125-127.

²⁵ 鄭良謨, 「廣州分院 窯址에 대한 編年的 考察」,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p. 123-125.

²⁶ 尹龍二, 「朝鮮 初·中期의 靑畫白磁」,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p. 445-446.

²⁷ 이에 대해 윤용이 선생은 15세기 후반에 상감백자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화백자와 함께 활발히 제작되었던 시기로 보고 1460년경이 상감백자의 중심시기가라고 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본 논문 도판 4)을 이 시기 경기도 광주 관요의 생산품으로 보고 있다.

격이 관요적인 것으로 변하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기도 광주에서는 점차 쇠퇴·소멸하고 그 여운이 지방가마에서 지방색을 띠며 잔존하다가 결국 소멸해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절대적 편년자료인 <1466년명백자상감초화문편병>뿐만 아니라, 상감백자를 출토하는 경상도 지역 가마의 수습유물들의 대체적인 양상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까지 이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²⁹

다음 장에서는 현존하는 상감백자를 문양유형별로 분석하여 상감백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양식변천을 통해 상감백자의 편년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 象嵌白磁의 형식분석: 문양소재와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象嵌白磁의 文樣은 대부분 종속문양대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넓은 공간에 主文樣이 시문되는데, 文樣素材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연꽃이나 모란을 소재로 한 연당초문·모란당초문 등의 唐草文系列과 연화문·모란문 등의 折枝文系列이다. 그외에도 連理木(連理枝)文,³⁰ 樹枝文, 楊柳文, 龍文, 魚文, 雲文 등과 드물게 繩簾文, 菊花印花文과 같은 문양도 보인다. 종속문양대는 橫線文帶, 唐草文帶, 蓮瓣文帶, 草葉文帶, 波狀形물결문대, 菊花文帶,

²⁸ 鐵畫粉靑沙器는 특히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에 걸쳐 공주 계룡산록에서 발전하였는데 백토분장 위에 철분의 안료를 가지고 붓으로 그림을 그린 종류이다. 강경숙 선생은 이와 같이 붓으로 무늬를 그리는 방법은 경기도 광주에서 한창 제작되던 청화백자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姜敬淑, 『粉靑沙器』, 『韓國美術史의 現況』(예경, 1992), pp. 340-342.

²⁹ 상감백자편이 나오는 경남 산청 방목리 1호묘의 지표수습유물은 분청사기, 상감백자, 조질백자, 양질백자 등으로 그 제작시기는 각각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15세기, 16세기, 17세기로 편년된다(國立慶州博物館·慶尙南道 河東郡, 앞의 책(1985), p. 24). 또한 경남 하동 백련리 2호묘는 지표수습유물 중에 구연부가 외반된 항아리의 기형이나 대접, 접시의 형태로 보아 16세기 또는 17세기경까지로 편년이 되고 있다(國立慶州博物館·慶尙南道 河東郡, 위의 책(1985), p. 35). 따라서 일부 지방의 특정한 가마에서는 매우 희귀하지만 16세기 이후에도 상감백자가 번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³⁰ 連理枝는 根幹이 다른 두 나무가 가지결이 서로 連하여 하나가 된 것으로 애정이 깊은 부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소재로 쓰인다. 이와 같은 의미로 比翼鳥라는 새도 함께 쓰이고 있다. 상감백자에서 '연리목문'이란 명칭은 이 연리지라는 나무의 특징을 파악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崔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漢韓大字典』(民衆書林, 1966), p. 672, 1225.

鋸齒文帶 등이 있다. 그러나 한 줄 혹은 여러 줄의 횡선을 상하부에 각각 돌려 만들어지는 공간에 주문양을 시문한 형태가 가장 많아 이러한 횡선문대가 상감백자 종속문양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면을 몇 개의 문양대로 구획 시문하는 방식은 말기 청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조 분청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상감백자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상감백자의 주문양소재 중에서 唐草文系列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³¹ 그 하나는 중국 元·明代의 청화백자 중에서 공예의장화된 당초문계열의 보상화당초문, 연당초문, 모란당초문이 누운 S자형으로 유려하게 돌아가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활달하게 돌아가는 당초가 간략화되거나 거의 형태만 남고 생략된 折枝文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당초문 유형은 전형적인 S자형 당초문과 비교했을 때 좁은 범주로는 당초문계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變形唐草文系列로 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문양소재를 형식분석하면 다섯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唐草文系列: 공예의장화된 누운 S자형 당초문계열
- 變形唐草文系列: 당초가 약화되어 절지문 형태로도 볼 수 있는 類似折枝文系列
- 折枝文系列: 연화문, 모란문계열 / 교차하는 수지문계열(수지문, 연리목문)
- 二重線 草花文系列³²
- 其他 系列: 龍文, 魚文, 繩簾文

³¹ 唐草라하는 용어는 원래 唐風의 이국풍의 덩굴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일반적으로 唐草文 형식은 植物의 實在의인 생태를 본떠서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화시킨 장식무늬의 한 유형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圓形의 국화와 S자형의 波狀넝쿨을 연결한 단순하고 단조로운 국당초문, 모란·연화 등으로 구성된 매우 짜임새있는 당초문이 나타나고 철채 등으로 그려진 회화풍의 당초문도 보인다. 조선시대의 도자기에는 청화 또는 철화, 진사, 상감 등의 시문기법으로 묘사한 회화풍의 당초문이 성행되어 장식의장 문양으로 존재한다. 임영주, 『傳統文樣資料集』(미진사, 1986), pp. 48-49.

³² 草花文은 각종 식물의 실제적인 모양을 묘사하여 도안화시킨 장식무늬의 한 유형으로 사실적인 회화풍의 초화문은 고려시대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철화, 청화, 진사, 양각, 음각, 상감 등 다양한 시문기법에 따라 각기 특성있게 나타나는 사실적 초화문이 있는가 하면 극히 추상화시킨 초화문 형식도 볼 수 있다(임영주, 위의 책(1986), p. 46). 본고에서의 이종선 초화문계열은 후자의 추상화시킨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이 계열의 문양형식에 대해 安輝瀟 선생님께서 회화사에서의 용어인 '쌍구법'을 제시하여 주신 바가 있다.



도 4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입지름 17.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5 청화백자연당초문대접, 元 14세기, 일본 이데미쓰(出光) 미술관



도 7 청화백자연당초문발, 元, 입지름 29.8cm

도 6 백자상감연당초문병, 높이 32.0cm, 호암미술관

1. 당초문계열

누운 S자형의 당초덩쿨이 돌면서 문양을 구성하는 당초문계열의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白磁象嵌蓮唐草文대접〉도4을 들 수 있다. 이 당초문은 중국 원·명초 청화백자의 전형적인 문양형식으로 고려시대 후반의 상감청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청화백자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다. 따라서 상감백자에 나타나는 당초문계열의 문양형식은 원대 청화백자의 영향으로 고려말에 제작된 고려청자뿐 아니라, 분청사기에까지 크게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감백자가 백자

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볼 때, 외부로부터 유입된 청화백자 등 중국 자기의 영향을 직접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4의 대접 외측면의 연당초문과 원대 청화백자인 〈청화백자연당초문대접〉도5 외면에 시문된 문양을 비교해보면 연꽃, 당초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호암미술관 소장의 〈白磁象嵌蓮唐草文瓶〉도6은 연꽃, 당초의 형태뿐 아니라 꽃을 채우는 기법이 원대 청화백자인 〈청화백자연당초문발〉도7을 닮으려는 듯이 보인다. 이 발의 연꽃은 우선 필선으로 윤곽을 먼저 그리고 그 안의 공간을 청화안료로 다시 채워 나갔다. 이것만큼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상감백자병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꽃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상감백자는 음각으로 먼저 문양을 시문하고 자토로 선 내지 면을 채우는 전통적인 상감기법과는 그 양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음각으로 시문한 문양에 흙을 채워넣는다고보다 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태토색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 청화백자나 유리홍 등의 새로운 도자를 접한 장인이 그것을 묘사함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변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朝鮮時代 象嵌白磁는 새롭게 수용된 중국 元·明系 白磁를 제작하는데 있어 象嵌이라는 고려로부터의 전통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표현해낸 독특한 종류의 백자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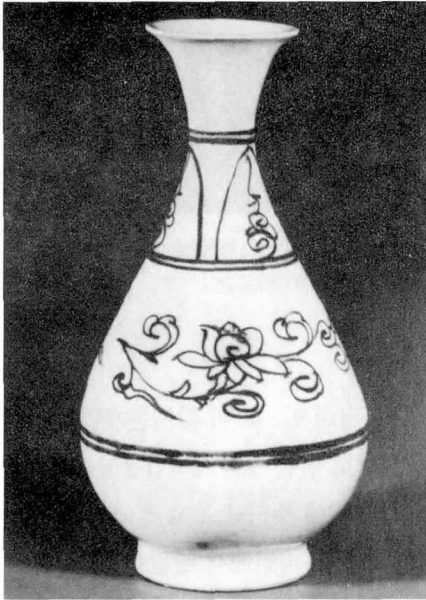
2. 변형당초문계열

변형당초문계열은 당초문계열의 활발하게 돌아가는 당초가 약화되어 절지문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도8이 있다. 이러한 문양 유형이 시문된 상감백자편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 광주의 우산리 2호, 17호 등의 초기 백자가마에서 출토되고 있다. 정확히 이 문양의 연원이 어떤 것이었나를 설명해줄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이 문양계열의 상감백자는 이 시기 조선 도자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상감백자만의 특징있는 문양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양유형의 상감백자는 원대 청화백자보다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의 〈釉裏紅唐草文瓶〉도9과 유리홍당초문소호에서도 유사점이 보이며, 磁州窯의 〈白地鐵繪唐草文瓶〉도10 상단 문양대의 꽃잎과도 유사점이 보여 그 영향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단정적인 결론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연꽃을 표현할 때 꽃의 형태가 사실적인 면이 부족하고 도안화된 점과 그 화관의 끝부분만 철채하듯이 상감하여 강한 흑



도 8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
높이 8.4cm, 입지름 16.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9 유리홍당초문병, 元.
높이 24.1cm,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도 10 백지철회당초문병, 元,
높이 3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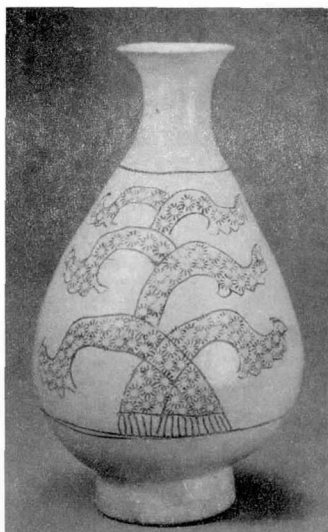
색으로 꽃의 존재를 부각시킨 점은 이 시대 도자들과는 다른 상감백자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3. 절지문계열

절지문계열에 속하는 상감백자의 문양이 앞의 변형당초문과 구분되는 것은 지면에 근간을 두고 줄기가 세로로 곧게 서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 앞의 당초문, 변형당초문 두



도 11 백자상감연화문병.
높이 32.5cm,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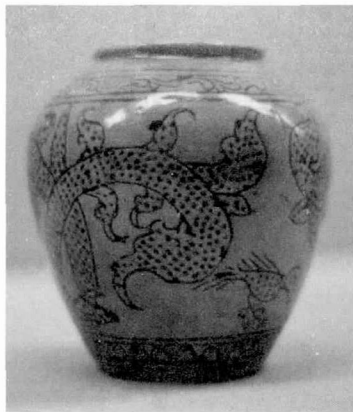


도 12 백자상감인화수지문병,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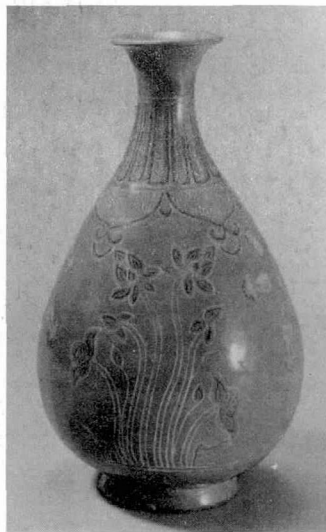
계열이 도안화된 공예의장적 요소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이 절지문계열의 상감백자는 비교적 회화적이고 사실적인 면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의 〈白磁象嵌蓮花文瓶〉도11처럼 종속문양인 횡선문대에 뿌리를 두고 뻗어 올라가는 비교적 사실적·회화적인 형태의 연화문·모란문계통이 있고, 지면에서 출발한 두 줄기가 서로 교차하여 '女'자를 이루며 뻗어올라가는 수지문계통이 있다. 수지문 중에는 도안화의 경향이 강한 인화기법의 〈白磁象嵌印花樹枝文瓶〉도12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白磁象嵌連理木文壺〉도13처럼 기이하게 생긴 줄기의 형태가 굽이치며 기면을 돌고 있는 연리목문이 있다.³³ 기와의 양 끝에서 출발한 줄기는 서로 교차하며 뻗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양소재는 고려 도자나 조선 도자를 통틀어 상감백자에만 보이는 특수한 문양소재이다.

이처럼 지면에서부터 뻗어 올라오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회화적인 묘사로 표현된 문양은 결국 상감백자의 한국화로의 경향을 보여주는 일면으로 분청사기에도 이러한 예들이 있다도14. 그러나 이 분청사기병들에 시문된 문양은 절지문 외에 여백을 남기지 않고 공간을

³³ 註30 참조.



도 13 백자상감연리목문호,
국립중앙박물관



도 14 분청사기상감연화문병,
높이 28.6cm, 호림박물관

보다 넓게 사용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처럼 상감백자는 주문양만 요점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상감백자만의 특징이 돋보인다. 절지문계열은 아무래도 지면에서 뺀어 올라가는 성격이 강하므로 대접류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문양형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상감백자 중에서 이 문양은 주병이나 편병, 호 등에서만 보인다.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은 象嵌白磁 문양의 전체적인 양상과 대체로 일치하여 線만으로 상감한 것, 부분적인 面象嵌 그리고 點描 혹은 單線으로 面을 채우는 기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특히 국화도장을 찍어 면을 채우는 印花技法의 예가 京畿道 廣州 鶴東里 지표수습품 중에도 있어 〈白磁象嵌印花樹枝文瓶〉과 관련하여 주목되며, 현존하는 상감백자에서 이 계열에 속하는 것들의 시문기법이 대체로 점묘 내지는 인화기법인 것은 분청사기와의 연관성이 한층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분청사기가 점차 한국화가 진행되어 분청사기다운 특징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문된 문양의 표현이나 분위기에서도 이미 한국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도 15 백자상감초화문소병.
높이 14.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6 분청사기조화초화문편병



도 17 분청사기조화문호편.
전남 무등산 충효동
W2지역 8층 출토

4. 이중선 초화문계열

이중선 초화문계열은 당초덩쿨이 시문되거나 지면에서 뻗어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 당초문계열과 절지문계열에 포함되는 요소를 지니지만, 그 표현방식이 이들과 달리 二重線이 함께 움직이며 문양을 구성한다는 특징에 의해 따로 분류하였다. 또한 여기에 속하는 象嵌白磁는 앞에서 이미 다룬 절대 편년자료로서 중요한 晉陽郡令人鄭氏墓 출토의 〈白磁象嵌草花文扁瓶〉(1466년)이 있고, 묘지를 제외하고 명문이 있는 유일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白磁象嵌太一殿銘草花文盞托〉이 있다.

〈백자상감초화문편병〉도2은 다른 편병들과 비교하여 기형도 이례적이지만 그 문양 시문수법도 바깥의 이중선과 중심의 이중선 사이의 공간에 이중선의 당초문이 도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특이하다. 〈백자상감태일전명초화문잔탁〉도3 역시 上·下 각각 두 줄의 횡선문 사이에 지면에서 二重線의 草文이 간략하게 뻗어 올라온다. 이러한 특징이 보이는 다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白磁象嵌草花文小瓶〉도15이 있다. 이 小瓶은 종속문양대로 單線으로 변형된 唐草文帶와 蓮瓣文帶를 肩部와 底部에 각각 지니고 있어 앞의 두 그룹(唐草

文系列, 折枝文系列)의 壺나 瓶에서 보았던 문양 구성대와 공통된다. 그러나 唐草文帶가 변형되어 간략화된 점은 주문양이 지면에서부터 뺀어 올라오는 草花文이 간략한 이중선으로 처리된 점과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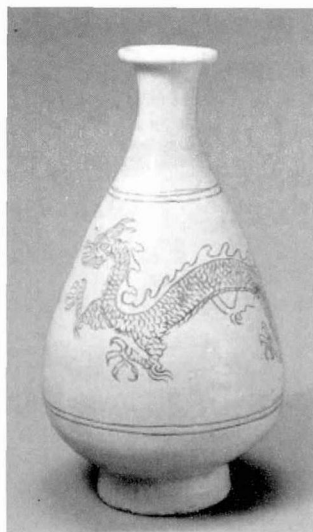
이렇게 이중선이 한 개체가 되어 기면을 효과적으로 메꾸고 있는 예는 귀얄조화문계통의 粉靑沙器에서 많이 나타난다^{도16}. 분청사기에서 귀얄조화문계통이 많이 시문되는 것은 象嵌, 印花기법이나 剝地기법의 분청사기가 제작되던 시기보다는 다소 늦은 때이다. 따라서 象嵌白磁의 이중선 草花文系列 문양형식의 특징이 이러한 귀얄조화문계통의 분청사기와 관련되고 있는 점은 이 계열 상감백자의 제작시기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忠孝洞 가마의 W2지역 8층과 W2지역 6층에서는 이러한 이중선과 아주 유사한 壺와 瓶이 발견되었다^{도17}.³⁴

5. 기타 계열: 용문, 어문, 승림문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白磁象嵌龍文瓶〉^{도18}은 전형적인 조선 전기의 병으로서 밑둥이 안정감있게 풍만하고 높은 굽을 가지고 있다. 문양 구성 역시 견부와 동하부에 각각 2줄씩의 황선이 둘러져 있고 그 사이에 흑상감으로 표현된 龍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운문과 함께 나타나는 운룡문이 아니라 용문 단독인 점은 문양의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감백자만의 표현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상감백자에서 龍文이 施文되는 경우는 이 瓶이 유일한 것이며 粉靑沙器에서 유사한 예들이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粉靑沙器象嵌印花雲龍文壺〉^{도19}는 문양과 구성에 있어서 중국 元·明 陶磁의 영향이 강한 예로서, 龍의 묘사에 있어서 4爪龍인 점이나 飛上한다기보다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은 〈白磁象嵌龍文瓶〉의 龍文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龍의 자세는 明初의 청화백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일반화된 것이지만, 머리 위의 갈기가 흔들림으로써 표현된 앞으로 나가는 강한 운동감 등의 표현은 더욱 자유분방하고 대담하여 조선적인 특징을 풍기는 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龍文과 비교가 가능한 요지 출토품으로 忠孝洞 가마에서 나온 〈粉靑沙器彫花龍文접시片〉이 있는데, 釉胎의 質이나 文樣으로 보아

³⁴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pp. 332-365.



도 18 백자상감용문병.
호암미술관



도 19 분청사기상감인화운용문호.
높이 49.7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0 분청사기조화용문접시편.
전남 무등산 충효동 출토

충효동 출토품 중에上品임을 알 수 있다. 내면에 白土를 바르고 如意珠와 힘차게 날으는 龍을 생동감있게 線刻하였고 크게 벌린 입과 길게 뻗어 앞의 꼬리장식이 두드러진 여의주의 표현 등은 틀에 박힌 자세를 취한 중국의 龍文과는 차이가 있는 조선 도자에서 발견되는 활달한 龍文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도20.

상감백자 중에는 건부와 저부의 황선문 사이에 가로로 점묘기법에 의한 물고기가 시문된 것도 있고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교차하는 〈白磁象嵌雙魚文瓶〉도21도 있다. 물고기가 문양소재로 등장하는 경우는 高麗 象嵌靑磁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빈번히 애용된 소재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분청사기에서는 상감분청사기, 조화분청사기, 철화분청사기에서 각 기법의 특성에 따라 다른 표현양상을 띠면서 나타난다. 그러나 楊柳文이나 草花文, 蓮花文, 波濤文 등과 함께 회화적인 묘사를 위한 소재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象嵌粉靑沙器에서 나타나고, 이와 달리 물고기가 크게 부각되어 단독의 주문양으로 배치되는 경우는 분청사기 중에서도 彫花粉靑沙器나 鐵畫粉靑沙器에서 많이 보인다도22.

기형, 문양구도, 제작기법면에서 분청사기적인 경향이 돋보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白磁象嵌繩簾文壺〉도23는 국화인화문의 종속문양대와 황선문대를 상하에 두고 그 사이를 승림문으로 채우고 있다. 이 壺는 기형에서도 문양소재에서도 상감백자에서는 이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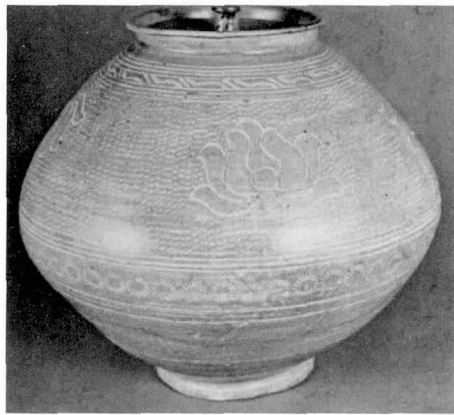
도 21 백자상감쌍어문병,
높이 32.4cm



도 22 분청사기조화쌍어문병,
높이 27.0cm, 호암미술관



도 23 백자상감승림문호,
높이 22.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4 분청사기인화상감연화문호,
높이 22.5cm, 국립중앙박물관

것으로 <분청사기인화상감연화문호>도24와 기형상으로도 기법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 백자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異形의 호가 극히 일부 상감백자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분청사기와의 강한 관련성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IV. 象嵌白磁의 양식변천에 따른 편년고찰

상감백자의 편년을 설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象嵌白磁의 絶對 編年資料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象嵌白磁 文樣素材의 形式分析을 통해 볼 때 분명히 각각의 유형 간에 양식적 相異가 보이므로 본 장에서는 주로 문양소재의 형식분석내용을 토대로 그 先後關係를 검토하여 양식적인 변천을 통한 編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상감백자가 조선에서 제작된 배경과 그 발생기의 모습을 유추하고 나아가 조선 도자 諸樣相 속에서 상감백자의 위치와 역할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상감백자가 소멸해가는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백자 중심 시대의 어느 부분에 자리매김하는지에 대한 이행의 측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朝鮮時代 象嵌白磁가 새롭게 수용된 중국 元·明系白磁를 제작하는데 있어 象嵌이라는 전통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표현해낸 독특한 백자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이다. 그 어떠한 미술작품도 그것이 제작되는 초기 단계에는 자극을 주었던 대상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감백자 제작의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수용하는 대상의 모방에 가까운 표현이 양식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도자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작품에서도 간취되는 것이며 상감백자뿐 아니라 조선 청화백자를 보더라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양식변화를 보여준다. 朝鮮 靑畫白磁는 처음에는 中國 元·明初 靑畫白磁의 공예의장화된 도안적 문양을 시문하다가 점차 조선적이고 회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한국화의 특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普遍的이고 一般的인 樣式規範 위에서 상감백자도 고찰할 수 있으며, 그 양식변천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 성립기(1430년경 이전): 전통성의 지속·외래요소의 수용

우선 성립기는 象嵌白磁를 製作하기 시작하는 時期로서 중국 元·明初 白磁를 수용하여 새로운 백자를 제작하는 수용의 단계이다. 그러나 상감백자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그 본이 되었던 중국 도자를 표현함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상감백자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유형이 존재했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수용기에는 아무래도 수용하는 대상의 모방에 가까운 표현이 양식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 元代의 貿易陶磁로서 동남아시아, 일본, 서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된 청화백자가 이들 각 지역에 자극이 되어 백자제작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최근 들어 이들 지역에서 발견·출토되고 있는 도자기가 명백히 시사해주는 바이다.³⁵ 직접적으로 元 靑畫白磁의 기술과 양식을 수용한 것이 베트남의 安南染付(靑畫)라고 불리는 一群의 靑畫白磁로 元 靑畫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지역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다.

日本에서는 元 靑畫磁器의 수입으로 당시의 도예계에서 청화자기를 창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여러窯에서 中國 陶磁를 모방하여 제작하였다. 도자기 제작기술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元 靑畫磁를 방불케 할 만한 15세기경의 褐釉瓶 등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西南아시아의 이란, 터키 등에서도 다수의 元 靑畫백자가 전하고 있어 그 모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 청화백자는 고려말부터 15세기 초에는 중국, 일본, 유구 등으로부터 빈번히 유입되고 있었음을 실록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 청화자기 유입에 관한 실록기록³⁸

유입된 시기	문헌기록	유입된 외래도자(청화자기)의 내용
고려말(1383년경)	효종실록 권15 6년 7월 을미조	태종이 국자박사로 있을 때 사용하던 청화잔을 태종 즉위 후 성균관에 하사함
세종 즉위년(1418)	세종실록 권1 즉위년 8월 신묘조	유구로부터 명의 청자기, 청화자기 등이 조공품으로 왕실에 전래됨
세종 5년(1423)	세종실록 권19 5년 정월 경술조	일본으로부터 명의 청화자기가 조공품으로 전래됨
세종 10년(1428)	세종실록 권41 10년 7월 기미조	명선덕제의 하사품인 청화자기를 사신 윤봉이 왕실에 전함
세종11년(1429)	세종실록 권46 11년 11월 갑진조	명의 하사품인 청화자기를 사신 김만이 전함
세종 12년(1430)	세종실록 권49 12년 7월 을묘조	명 사신이 청화자기를 하사품으로 전달함
문종 즉위년(1450)	문종실록 권3 즉위년 8월 병신조	명 사신 정선과 윤봉이 청화자기를 왕실에 전함

³⁵ 아베 요시아키(失部良明), 「元靑花磁の輸出とその影響力」, 『陶磁大系』 41 元の染付(平凡社, 1974), pp. 126-131.

³⁶ 胴部和 底部의 作行, 주문양의 劃花牡丹唐草文과 그 아래의 가는 劃花蔓唐草文의 포치에서는 元 靑畫白磁의 영향이 보인다. 時期 比定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15세기경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베 요시아키(失部良明), 앞의 글(1974), p. 131 측도 99.

중국 청화백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언제인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말에는 청화백자가 전래되었음이 분명하다. 고려말인 1383년에서 1387년경에 직급이 높지 않은 관인들의 술자리에서도 청화잔을 이용하고 있어 이 시기에는 고려에서도 원대 청화자가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⁹ 당시는 명과의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된 청화잔은 이전에 유입된 원대 청화자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⁴⁰ <표 3>에서 보듯이 명의 皇室御器인 靑畫白磁가 전래된 확실한 기록은 세종 10년(1428)에 처음 나타나며, 명의 하품이나 진상품과 그외에 명의 사신들에 따른 청화백자의 유출과 우리나라 사신의 왕래에 의해 유입된 청화자기의 양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 磁器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들어온 것 외에도 日本·琉球로부터 진상되기도 하였다.⁴¹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로 보아 고려말경부터 중국에서 청화백자가 전래되어 문종 즉위

37 이란의 <靑畫白磁鸚鵡文大盤>에서 중심부 주위의 寶相華唐草文은 元靑畫磁器에 아주 흡사하고 터키의 <靑畫白磁海馬圖大盤>에서도 역시 정교한 元樣式이 보인다. 야베 요시아키(失部良明), 앞의 글(1974), p. 131, 축도 101, 102.

38 『孝宗實錄』卷15 효종 6年 7月 乙未條, “……太宗大王在前朝 爲國子博士行酌於館中 有靑花盞 太宗卽位 飾本館寶藏之多士之 聚欲太學也……”; 『世宗實錄』卷41 世宗 10年 7月 己未條, “……明使尹鳳 白磁靑花大鍾獻上 明宣德帝 白磁靑花大盤五個 小盤五個下賜……”; 『世宗實錄』卷49 世宗 12年 7月 乙卯條, “……靑花獅子白磁卓器三卓靑花雲龍白磁酒海三箇……”; 『世宗實錄』卷46 世宗 11年 11月 甲辰條, “……使臣金滿入京 上 率王世子及百官 迎勅于慕華館 還宮行禮如義 勅曰 惟王 聰明特達 恭事朝廷 前遣人所進海靑鷹犬 足見王之至誠 送深嘉悅 茲遣內官金滿 勅諭王特賜白磁器十五卓 王國中 有好海靑及龍黃鷹 犬犬 尋訪進來 尤見王之美義 故茲勅諭 宜體至懷 群臣及耆老宰樞咸造欲賀 命停之上 率王世子及百官 幸大平館 設下馬宴 使臣 進白磁靑花大蝶四事……”; 『文宗實錄』卷3 文宗 卽位年 8月 丙子條, “……鄭善指闕……善進段子五匹 羅一匹白玉帶一腰 靑畫鍾六事 畫楹二事……段子二匹”; 『文宗實錄』卷3 文宗 卽位年 8月 丁丑條, “……尹鳳……靑畫白鍾五事 紫色鍾六事 畫碗子十事 純靑小碗子十事 純靑酒注一事 大中小櫟六十事 靑畫沙盤九事 靑畫臺盞一事……東宮……純靑子六事 鄭善 進段子三匹 紫櫟二十七事 花茶鍾六事……靑畫白坭碗十事……東宮 段子二匹 靑畫茶鍾六事……”

39 太宗이 高麗朝 國子博士로서 재임할 당시에 애용하였던 청화잔이 있었는데 태종이 즉위한 후 成均館에 장식하여 이것을 寶藏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 말기에는 청화백자가 전래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孝宗實錄』卷15 효종 6年 7月 乙未條. 앞의註38 참조).太宗이 고려 遇王 壬戌年(1382)에 進士에 뽑히고 이듬해인 癸亥年(1383)에는 文科에 뽑혔으므로 이후 國子博士로 재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1383년(明 洪武 16) 이후로 추정된다. 이 盞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면 흥무 10년대를 전후하여 전래되었을 것이다(李相起, 『朝鮮前期의靑華白磁』(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p. 12-13).

40 金允貞, 『高麗後期에서 朝鮮初期 象嵌靑磁에 나타난 元代 磁器의 影響』(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21.

41 『世宗實錄』卷1 世宗 卽位年 8月 新卯條, “……琉球國王二男賀通連 遣人致書于左右議政 獻丹木五百斤……靑磁器十事……靑磁花瓶一口……”; 『世宗實錄』卷19 世宗 5年 正月 庚戌條, “……日本國前九州總管源道鎮 修書于禮曹……獻硫黃五千勅……花磁酒器二……”; 『世宗實錄』卷19 世宗 5年 10月 癸卯條; 『世宗實錄』卷21 世宗 5年 9月 壬寅條; 『世宗實錄』卷22 世宗 5年 10月 壬戌條.

년(1450)까지 유입되었으며, 아마도 이렇게 전해진 청화백자는 그 제작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된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에 의한 조선 청화백자가 제작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국내에서 토청을 사용하여 번조한 확실한 기록은 세조 10년(1464)이며, 토청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그 이전부터 보인다.⁴² 세조·예종년간에는 국내에서 토청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구하기도 힘들고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정제가 필요한 토청으로 청화백자를 번조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양질의 회회청을 사용하여 청화백자를 번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하겠다.⁴³

세종 30년(1448) 왕명에 따라 청화백자의 유입이 금지되었고 세조 원년(1455)에 工曹에서 中宮酒房에서 사용할 金盞을 만들기를 청하니 世祖는 畫磁器로 이를 대응하도록 하였다는 기록과⁴⁴ 세조 7년(1462)에 완성한 『經國大典』 刑典에는 酒器 외에 靑畫白磁器를 사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禁制가 나와 있어⁴⁵ 中宮殿에서 畫磁器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禁制해야 할 정도로 청화백자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세조 원년(1455)에는 회회청으로 청화백자가 번조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⁴⁶ 또한 1451년에 완성된 『世宗實錄』 「五禮儀」 중 嘉禮序例의 尊爵條에 청화안료로 雲龍文이 그려진 白靑靑畫酒海의 그림이 있어 아마도 세종말경이 되면 이미 명으로부터 수입한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국가에서 지내는 吉禮나 嘉禮 등의 중요한 儀式에 쓰이는 특수한 용도의 磁器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된다.⁴⁷ 마침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의 청화백자묘지(景泰 7년, 1456)의 발견으로 청화백자 제작시기를 한층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따라서 조선 청화백자는 세종말 무렵부터 제작을 시작하여 세조초에는 회회청을 사용

42 『世祖實錄』 卷30 世祖 9年 5月 壬子條, “…… 全羅道敬差官丘致响 得回回靑於康津以進 ……”; 『世祖實錄』 卷31 9年 閏7月 庚申條, “…… 慶尙道敬差官柳緩 來復命仍進諸邑產物 咸陽郡金 眞寶縣深重靑 密陽府回回靑 相似石 長鬐縣松鐵 相似石丁粉 淸道郡綠礬石及鉛鐵 相似石 盈德縣深重靑 相似石義城縣回回靑 相似石 ……”; 『世祖實錄』 卷34 10年 8月 戊子條, “…… 全羅道敬差官丘致响 採順天府會回靑相似石 畫沙器燻造并採康津縣靑鐵以進”; 『世祖實錄』 卷34 10年 9月 癸亥條, “…… 慶尙道觀察使 採進蔚山郡所產 深重靑土靑三靑 ……”

43 成俔, 『慵齋叢話』 卷10, “…… 至世祖朝 雜用彩磁 求回回靑於中國…與中國無異 然回靑 罕貴 求中國亦未多得 朝廷議曰 中國雖窮村茅店 咸用畫器 豈皆回靑所畫 應有他物可畫春 訪於中國 則皆曰此土靑也 然所謂土靑者 亦未求得 由是我國畫磁器 尠少 ……”

44 『世祖實錄』 卷1 世祖 元年 閏6月 癸亥條, “…… 工曹 請造中宮房金盞 命以畫磁器代之 東宮亦用磁器 ……”

45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46 鄭良謨, 「李朝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p. 176.

47 鄭良謨, 위의 글(1980), p. 175.

48 고려대학교박물관, 『과평윤씨 정경공파 묘역조사 보고서』(2003), pp. 2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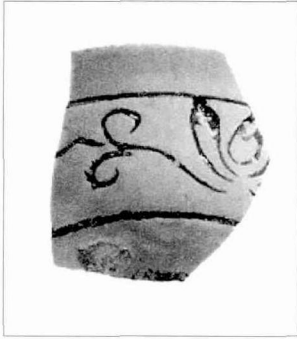
하여 번조하였고, 세조 9년(1463)부터 예종년간에는 회회청의 구입이 어려워 토청을 채취하여 번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⁴⁹ 이러한 조선 초기의 도자양상을 살펴볼 때, 수입된 중국 청화백자에 대한 사용 욕구가 있었고 그와 함께 제작의지 또한 강했을 것이며, 꾸준히 제작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청화백자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방법과 당시 도자 상황의 보편성 속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상감백자의 제작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 조선 청화백자가 제작되기 이전의 시기에 청화안료의 구입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청화백자 제작기술이 미흡하여 청화백자를 모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감기법이 사용되었으리라는 추정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는 조선시대 상감백자가 고려 상감청자나 상감백자에서 보여주는 기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더욱 확실하다.

조선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청자 중심시대에서 백자 중심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백자를 제작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이 새로운 외래양식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였을 것이다.

현재 상감백자의 성립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시대 배경 속에서 살펴볼 때, 상감백자 중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당초문계열에 포함되는 상감백자가 양식적으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白磁象嵌蓮唐草文瓶〉^{도6}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白磁象嵌蓮唐草文대접〉^{도4}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예들로서, 이들의 蓮唐草文 양식은 중국 원대 청화백자의 영향이 짙다. 明代의 靑畫白磁가 보다 도안화된 공예의장적 寶相華唐草文을 묘사하고 있다면, 元代 靑畫白磁는 그보다는 사실적인 경향이 짙다^{도5,7}. 따라서 이 두 점의 象嵌白磁는 보다 사실적인 경향의 연당초문을 묘사하고 있고 그 연꽃의 묘사에 있어서도 원대의 영향이 더 강하게 표현되었다. 이들 象嵌白磁에 보이는 元代 陶磁의 영향은 高麗 後期 靑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초 분청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당초문계열의 상감백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제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당초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묘사된 것과 같은 구성을 갖는 일련의 대접류가 있다^{도8}. 變形唐草文系列로 분류한 이 象嵌白磁대접들에는 외측면 상하에 횡선문이 있고 그 사

⁴⁹ 『睿宗實錄』卷8 元年 10月 乙卯條, “……全羅道觀察使曰 康津縣所產回回靑 會已採取試驗 問有眞實者卿可訪問 公私沙器燻造時 須用回回靑 疑似沙土 試驗以啓 邑人得此 彩色以進者 或賞職 超資敘用或賞布五十匹 廣諭本道居民 并諭諸道…….”



도 25 상감백자편,
일본 미즈사키 유적 출토

이에 일정하게 도안화된 연꽃 내지 모란꽃이 중앙에 묘사되고, 이 꽃의 좌우로 線象嵌의 당초가 뻗어나가고 있다. 변형 당초문계열에 속하는 상감백자들 역시도 중국 원대의 청화백자나 유리홍, 자주요 등 외부로부터 유입된 도자의 영향하에 제작되고 있음을 추측해 보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이 유형의 모본이 되었는가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계통의 문양유형들은 절대 편년자료의 예는 없지만, 요지 출토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제작시기는 상감백자가 출토되는 백자가마의 소성시기의 해석과 더불어 더 확실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문양양식의 상감백자편들이 나오는 경기도 광주 우산리 일대의 백자가마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廣州牧 磁器所 4곳 중 下品の 자기를 제작한 곳으로 표기되어 있는 所山일 가능성에⁵⁰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고, 결국 『세종실록』 「지리지」에 준하는 1424-1432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일한 형식의 상감백자편 도25이 일본 대마도의 미즈사키(水崎遺跡) 유적에서도 나왔다.⁵¹ 동반 출토된 유물들도 인화분청이 완성되기 전인 1420년대 이전이나 전후의 유물들이 많고 상감백자가 출토되는 층을 덮고 있는 상위층에서 나온 탄화물의 연대가 1420년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이 유적지는 왜구의 본거지이자 한국과 일본의 중계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으며, 조선이 대마도를 공격했던 1419년의 사건과도 관련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상감백자편은 그 하한을 1420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상감백자의 1단계인 성립기는 대체로 1430년경을 전후하여 분청사기가 한국화되는 등 분청사기다운 특징으로 발전하는 시기 이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상감백자의 성립기는

⁵⁰ 鄭良謨 선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된 廣州의 陶器所 磁器所 7개소 중 州東 伐乙川(上品)과 역시 州東 所山(下品)은 현재 樊川과 牛山으로 비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하였다(鄭良謨, 앞의 글(1991), p. 123). 尹龍二 선생도 『세종실록』 「지리지」의 '在州東 所山 下品'의 기록에 해당하는 곳이 牛山里로서 마을 모습이 소(牛)의 형상이어서 소(牛)가 소(所)로 표기되다가 牛山里로 불려진 것 같다고 하였다(尹龍二,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變遷研究」, 『韓國陶器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p. 398). 姜敬淑 선생 역시 『세종실록』 「지리지」의 地名의 문제에 대해 廣州 磁器所 4곳 중 伐乙川은 樊川里(벌내), 所山은 牛山里, 羔峴은 陶水里로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姜敬淑, 앞의 책(1986), p. 23).

⁵¹ 『水崎遺跡』 美津島町文化財保護協會調查報告書 第1集(長崎縣美津島町文化財保護協會, 2001), pp. 18-20.

중국 청화백자 등의 유입, 당초문계열의 유행이라는 조선 15세기 전반경의 보편적인 도자현상과 이러한 문양양식이 출토되는 요지 및 유적지의 편년근거 그리고 실록 등의 문헌자료에 의해 대체로 1430년경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착·발전기(1430년경 이후-1470년경 전후): 회화적, 사실적, 한국적으로 변모·정착

상감백자의 발전기는 상감백자가 시대보편적인 도자로 정착해가는 시기로서 처음 제작될 때의 도안화된 요소와는 달리, 상감백자의 문양소재와 표현기법이 차츰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粉靑沙器도 가장 분청사기다운 특징으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象嵌白磁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단계와 2단계가 구분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전단계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적 요소가 수용되어 두 양식이 공존하면서도 서로 조화되는 모습이 분청사기와 상감백자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보다 본격화되고 정착·흡수되면서 조선 도자만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발전해갔다. 이 시기는 분청사기에서 대체적으로 象嵌文, 彫花剝地文의 시문수법이 능숙해지고, 기형과 문양소재의 표현이 조선적 특징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1430년대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高麗末 퇴락한 象嵌靑磁에서 변모·발전한 粉靑沙器는 퇴화된 象嵌靑磁의 문양이 그대로 이어지는 한편에선 기형, 문양 등이 재정비되어 조선적인 문양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象嵌·印花·剝地·陰刻(조화) 등 도자공예에서 기법상의 다양한 발전을 보이면서 恭安銘대접이나 敬承府, 仁寧府, 仁壽府 등의 관청명이 있는 대접, 접시에서 보듯이 인화기법에 의한 원권문 등이 뾰뾰히 압인된 도안화가 절정을 이루는가 하면 점차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조선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렇듯 한국적인 분청사기만의 독특한 유형을 이룩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주변에 충분히 파급될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忠孝洞 분청사기가마 E2-W1지역의 유물 출토상황을 보면, 관청 공납용으로 제작된 인화기법에 의한 질이 우수한 대접과 접시류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지만, 편병이나 호 등의 대형기형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회화적인 표현양식이 면상감이나 박지기법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또 全北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 가마에서도 面象嵌으로 보다 회화적이



도 26 정통5년명분청사기상감연어문반형묘지, 1440년, 입지름 35.8cm, 남궁련



도 27 백자상감연어문호, 높이 15.5cm, 남궁련

고 자유로운 분청사기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扁瓶들이 다수 출토되어 관청명이 새겨진 印花文系대접이나 접시류보다 瓶이나 扁瓶 등에서 회화적인 분청사기의 특징이 먼저 나타나서 점차 정착되어 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⁵³

〈正統5年(1440)銘 粉青沙器象嵌蓮魚文盤形墓誌〉는 이러한 분청사기의 특징적 표현양식을 보여주는 편년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내저면에 세 마리의 물고기와 연화절지문이 번갈아 흑백상감되었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는 듯한 몸동작으로 표현되어 이후 분청사기조화문 편병에서 자주 보이는 물고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도26}. 이처럼 회화적이지는 못하더라도 〈象嵌白磁壺〉에도 연화문과 어문이 교대로 나타나는 蓮魚文이 시문된 예가 있다^{도27}.

⁵² E2-W1지역은 1424-1432년을 전후로 하여 운영되었던 곳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1993), pp. 154-158.

⁵³ 강경숙 선생은 우동리 분청사기요의 활동시기를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과 1440년대의 문양과의 공통점으로 1420년대 이후 1450년경까지 약 20-30년간 지속되었으리라고 보았다. 강경숙, 「扶安 牛東里 粉青沙器窯」, 『粉青沙器-附 扶安牛東里窯 出土品』 특별전도록 13(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pp. 11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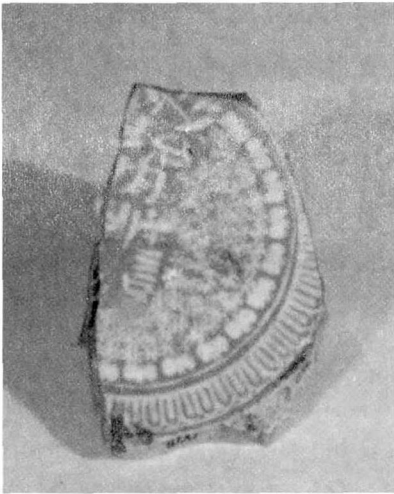
또한 象嵌白磁 문양으로는 유일한 경우인 〈白磁象嵌龍文瓶〉의 龍文도 〈粉靑沙器象嵌印花龍文壺〉나 〈충효동 출토 접시편〉 등과 비교가 가능하다^{18, 19, 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분청사기상감인화운룡문호〉는 기면을 작은 인화국화문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며 백토가 진한데 이러한 점은 인화분청사기 전성기의 특징이다. 상감운룡문을 주문양으로 삼은 점, 목이 긴 입호형태인 점, 세련된 분청사기의 유태를 지닌 점 등은 문양, 구도, 제작수법에서 元과 明 선덕(1426-1435)자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은 이 호가 시기적으로 상감분청사기의 전성기를 벗어나지 않는 15세기 전반기 즉, 세종년간(1418-1450)에 제작된 것임을 시사해준다. 제작시기를 더 구체화시킨다면 유태 및 시문수법이 충효동 출토 〈武珍內瞻명인화분청사기편〉과 유사하므로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430년에서 145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28, 54}. 이 호와 비교되는 충효동 출토 〈분청사기조화운룡문파편〉은 질이나 문양시문기법 등으로 보아 충효동 전성기 초반 즉 1450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⁵⁵ 이들에 보이는 용문의 공통점은 틀에 박힌 자세를 취한 중국의 용문과는 달리 조선 도자에서 발견되는 활달한 용문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중국적 요소가 이미 조선적 특징으로 변모·정착된 면을 잘 설명해주는 문양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분청사기는 1420년대가 되면 유태가 정선되어 밝은 회청색을 띠고 기면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문되고 전면이 몇 개의 문양대로 구획되어 안정된 구도와 형식을 지니게 되며 1420년대 말-1430년대 초기에는 상감문과 조화박지문의 시문수법이 능숙해졌고, 1430년대부터는 분청사기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상감백자의 문양양식으로 보아 적어도 1430년대부터는 분청사기에서도 面象嵌技法, 剝地技法 등을 사용한 자유로운 표현양식이 발전하였던 것처럼 상감백자의 표현양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적인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발전하던 이 시기의 粉靑沙器와 象嵌白磁와의 친연성은 절지문제열의 상감백자류에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본 오사카시립도양도자미술관 소장의 〈白磁象嵌蓮花文瓶〉^{도11}은 호림박물관 소장의 〈粉靑沙器象嵌蓮花文瓶〉^{도14}에서와 같은 문양구성을 보이는데, 동하부의 횡선문으로부터 뻗어올라가는 연화를 표현하였고 화판의 묘사에 있어서도 완전한 면상감이 아니라 선묘 또는 점묘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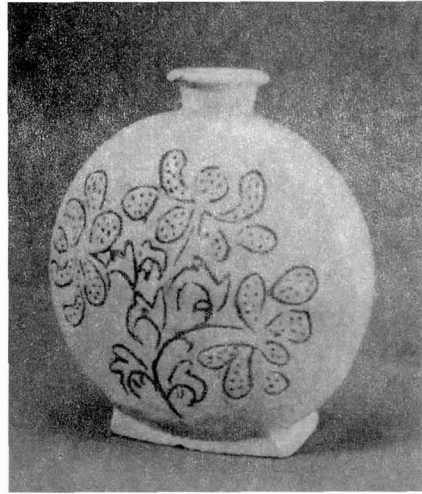
⁵⁴ 김영원, 앞의 책(1995), pp. 120-124.

⁵⁵ 국립중앙박물관, 『光州 忠孝洞窯址』(1992), p. 85. 그러나 김영원 선생은 1450년 전후의 광범위한 시기를 좁히고 앞당겨서 1430년대를 거론하고 있다(김영원, 앞의 책(1995), p. 124).

⁵⁶ 김영원, 앞의 책(1995), pp. 125-126.



도 28 무진내섬명인화분청사기편,
전남 광주 무등산 충효동 출토



도 29 백자상감모란문편병,
높이 14.8cm, 호림박물관

상감백자병의 문양이 도안화되고 형식화된 것에 비하면 상감분청사기병은 더 자유롭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회화적인 면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상감백자의 문양양식이 분청사기보다는 도안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지문계열의 상감백자가 당초 문계열에 비하면 사실성이 가미되어 보다 회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서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1단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기형의 상감백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전단계 상감백자가 주로 주병이나 구연 외반의 대접 위주였던 것에서 특이한 기형으로 扁瓶과 자라병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편병은 물론 고려말부터 나타나는 형태이지만 이 편병이 1단계에 해당하는 예가 거의 없고 2단계에 이르러 다수 발견되는 배경에는 분청사기편병이 많이 제작되는 도자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회화적인 문양묘사에 필요한 공간활용이 대접과 같은 소형기류보다 편병에서는 더욱 용이하다는 점도 이러한 새로운 기형의 제작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호림박물관 소장 의 〈白磁象嵌牡丹文扁瓶〉도29은 보다 회화적인 절지문계열로서 편병의 한 면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편병의 등장과 보다 회화적이고 사실적인 문양표현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독특한 문양소재의 예로 連理木이 시문된 일련의 상감백자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의 〈白磁象嵌連理木文壺〉도13와 몇 점의 〈連理木文瓶〉에서의 이 문양은 다른 도자

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으로서 집의 지붕 치미에서 출발하는 줄기가 서로 교차하면서 기면 전체를 넘나들며 구비치고 있다. 연리목 혹은 연리지는 根幹이 다른 두 나무 또는 그 가지가 서로 접해서 하나가 된 형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 사이 공간에 새도 보이는데 이는 比翼이라는 눈과 날개가 하나만 있어 두 마리가 서로 나란히 해야 비로소 두 날개를 이루어 날 수 있다는 새를 표현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比翼連理라는 고사성어와 연관이 있는 문양으로서 부부의 의가 대단히 좋거나 남녀 간의 애정이 깊음을 비유하는 것이다.⁵⁷ 이 문양의 표현은 단선 내지 점에 의한 분청사기적 기법이며 문양소재는 아주 한국적인 것인데 이러한 문양소재가 나타나는 것도 2단계 상감백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절지문계열의 하나로서 교차하는 樹枝에 小菊文의 인화기법을 전면에서 적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인화문 분청사기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말해주는 병이 한 점 있다^{도12}. 이러한 요소를 보이는 또 다른 예로 국화문의 도장을 찍어 종속문양대를 나타내고 그 사이 器面을 승려문으로 시문한 壺는 백자에는 나타나지 않는 異形의 호로서, 분청사기와의 강한 관련성을 대변하고 있다^{도23, 24}.

이 시기는 편병 등의 기형이나 연어문, 연리목문 등의 소재에서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고 문양표현이 보다 사실적·회화적 경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분청사기 등과의 교류를 통해 본격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분청사기의 편년자료와 요지 출토품에 기대어 추측해 볼 때, 상감백자는 분청사기와 마찬가지로 1440년경을 전후로 하여 1450년을 지나면서 정착 발전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1470년경을 전후로 한 전국 분청사기 가마에서 분청사기는 쇠퇴하고 점차 백자 제작이 증가해가는 현상과 함께 상감백자 역시 쇠퇴·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3. 소멸기(1470년경 이후): 지방화의 시기·쇠퇴, 소멸의 시기

상감백자의 소멸기는 중앙관요에서의 상감백자의 제작량이 줄어들고 점차 지방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것은 1470년경을 전후로 하여 경기도 광주 일대에 관요인 분원이 설립되

⁵⁷ 註30 참조.

어 조선 청화백자의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부터이다. 1470년경 경기도 광주 일대에 관장제 수공업체제로서 관요적 성격을 띤 사용원의 분원이 성립되어 백자 제작의 중심지가 되면서 토산공물로서의 분청사기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고 각지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고려 상감청자에서 간혹 채택되던 인화기법이 세종년간을 지나면서 대접의 중심문양으로 등장하여 점차 세련되다가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다른 기법 등과 함께 쇠퇴하고 귀알담금분장기법이 분청사기의 명맥을 이어간다.

상감백자도 성립, 발전의 단계를 거쳐 이 시기가 되면 쇠퇴의 양상을 띠는데, 상감백자 중에서 출토지와 제작시기가 분명한 절대 편년자료인 호암미술관 소장의 <진양군정씨묘지와 편병>이 그 양상을 잘 대변해준다. 중앙가마가 아닌 지방가마에서 제작한 이 상감백자들은 그 문양이 흐트러지고 단순해지고 있으며, 軟質白磁라는 質的인 면에서도 京畿道 廣州産의 硬質系 청화백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1,2}.

현존하는 상감백자의 절대편년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인 진양군정씨의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일괄 중 <백자상감초화문편병>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상감백자이다. 이 편병은 이중선 초화문계열의 문양으로 이미 꽃의 형태는 사실성을 잃고 당초덩쿨도 더 이상의 탄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형태도 전체적으로 조방하고 간략·생략화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상감백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요소가 현저히 드러나는 것들이다.

이 편병과 매우 유사한 예로 <太一殿銘蓋托>도³이 있다. 이 蓋托은 軟質白磁이며 蓋에 묘사된 草文은 扁瓶처럼 이중선이 나란히 시문되는 형상인데 이러한 이중선에 의한 간략화된 초화문의 표현은 光州 忠孝洞 가마의 1457년을 전후로 한 제작년대를 지니는 층위에서 발견되고 있는 다수의 분청사기호와 병들의 조화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16,17}. 아마도 이 <太一殿銘蓋托>은 충효동 가마 출토 조화분청사기편과의 유사성이나 진양군묘지 출토 초화문편병과 비교해도 태일전이 1434년과 1478년 사이에 慶北 義城에 있었던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적어도 편병이 제작된 시기와 비슷한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象嵌白磁는 이 시기가 되면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소멸하는데 그 하한이 언제인지는 정확한 자료가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朝鮮時代의 墓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墓誌는 기록되어진 내용에 의해 묘주의 이력은 물론 묘지 자체의 분명한 연대를 밝힐 수 있는 동시에 그 기법까지도 살필 수 있는 편년자료의 역할을 한다. 朝鮮時代의 陶磁 墓誌는 종류나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제작기법에 의해 도자기 자체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⁵⁸

15세기에는 象嵌靑磁와 象嵌粉靑沙器, 象嵌白磁 등으로 제작되던 묘지가 16세기 극초부터 靑畫白磁墓誌의 제작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鐵畫, 辰砂 등으로 제작된 墓誌가 주종을 이루면서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진다. 陰刻墓誌, 粉靑沙器墓誌가 간혹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象嵌技法으로서의 粉靑沙器墓誌는 아니다. 이 묘지들 중에서 <1466년명백자상감묘지>와 <1467년윤증명백자상감묘지>가 상감백자묘지로서 전해지는 전부이고 이후에는 더 이상 상감백자로 제작된 묘지는 없었던 것 같다.⁵⁹ 象嵌白磁는 물론이고 象嵌靑磁墓誌, 象嵌粉靑沙器墓誌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象嵌白磁의 자체적인 퇴보·소멸이라기보다 상감기법의 소멸이라는 조선시대 도자기의 주류에 편승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象嵌白磁의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粉靑沙器에서도 이미 생략화와 조방함이 팽배했던 소멸시기에 해당하는 것과의 공통점을 보인다. 이렇게 粉靑沙器와 象嵌白磁는 分院에서의 白磁 中心 製作에 따라 퇴화·소멸의 길을 걸으면서 지방에서 지방색을 띠며 그 명맥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전의 粉靑沙器만의 특징적 발전이라기보다 官窯에서의 백자 제작의 주도적인 양상에 비해 아주 부분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鐵畫白磁 등에 그 여운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조선시대 상감백자는 새롭게 수용된 중국 원·명 청화백자 등을 제작하는데 있어 상감이라는 고려로부터의 전통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표현해낸 독특한 종류의 백자이다.

따라서 조선 상감백자는 처음 제작단계에서는 15세기 전반의 다양한 도자 특히 분청사

⁵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明器와 墓誌』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특별전도록 7(1978).

⁵⁹ 『世界陶磁全集』 19 李朝篇에 鄭良謨 선생이 1417년 <永樂15年銘粉靑沙器墓誌>로부터 1900년 <庚子銘靑畫白磁墓誌>까지 40여 점을 헤아리는 묘지들을 陶磁史의인 상황과 더불어 정리하여 놓은 「年表」를 참고로 한 것이다. 『世界陶磁全集』 19 李朝(小學館, 1980), pp. 326-330.

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기법이 연속되면서 중국 도자의 영향이 기형과 문양에 함께 공존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 조선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며 발전하는데, 이것은 조선 15세기 전·중반경의 보편적인 양상으로서 모방, 수용의 단계를 지나 점차 정착 흡수되면서 한국적으로 한 걸음 발전해간 것이다. 이 발전단계에서 상감백자는 분청사기와 문양소재, 표현기법, 표현양식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그 유사성 내지 상호관련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감백자는 백자로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상감백자만이 가지는 문양의 요점적이고 간결한 표현이라든지 상감하는 기법에서의 차별성, 즉 철채하듯 면상감하는 것이라든지 끝만 부분 상감하는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15세기 후반 즉 경기도 광주에 관요로서 사용원의 분원이 성립되는 1470년 경을 전후로 하여, 조선 청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시기에는 상감백자는 지방화되고 점차 쇠퇴, 소멸해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 15세기의 상감백자는 청화백자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즉 청화백자가 제작되기 이전에 문양이 시문된 백자의 하나로 제작된 상감백자는 청자 중심시대에서 백자 중심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그 전환의 양상을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산물이었다는데, 그 위치를 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상감백자에 대한 연구는 편년을 정확히 말해주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상감백자가 출토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백자가마 및 경상도 지역가마의 소성연대도 단정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자료와 요지 발굴조사에 의해 더욱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주제어(key words): 15세기(15世紀, the 15th century), 상감백자(象嵌白磁, white porcelain with inlay), 청화백자(靑畫白磁, blue and white porcelain), 분청사기(粉靑沙器, Buncheong ware), 연질백자(軟質白磁, white porcelain with soft quality), 관요(官窯, official kiln), 경기도 광주(京畿道 廣州, Gwangju, Gyeonggi-do Province), 경상도 산청(慶尙道 山淸, Sancheong, Gyeongsang-do Province), 경상도 하동(慶尙道 河東, Hadong, Gyeongsang-do Province)

A Study on Dating the White Porcelain with Inlay of the Joseon Dynasty

Kwon So-hyun

The white porcelain with inlay (象嵌白磁) of Joseon dynasty is a kind of white porcelain, which was made before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of Joseon dynasty (朝鮮靑畫白磁) as an influence of the style of Chinese ceramics. It was made at the latter part of 15th century and was regionalized, diminished and disappeared around 1470 that the branch official kiln (分院) as a division of Saongwon (司饗院: an official organization for royal food) was in Gwangju (廣州), Gyeonggi-do province (京畿道).

The 15th century is the time when the various kinds of ceramics became a single kind of white porcelain. In the late Goryeo dynasty buncheong ware (粉靑沙器) was made based on the traditional skills of celadon with inlay and Chinese ceramics were imported from China, Japan and Yu-gu (琉球). In these situation the white porcelain with inlay was made by mixing the Chinese ceramics with the traditional skills with inlay (象嵌技法).

The tradition of inlaying skills transmitted from Goryeo was made by scarfing the surface with the style and putting ocher clay (赭土) and pottery clay (白土) in it whereas the Joseon white porcelain with inlay was made by scarfing the style first and then painting it with the iron black. This was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Joseon white porcelain with inlay.

There are five different kinds of styles which is divided by the type of the main

design in white porcelain with inlay; scroll design (唐草文), modified scroll design (變形唐草文), separated branch design (折枝文), floral design with two lines (二重線草花文), dragon design (龍文), fish design (魚文) and many other designs. Scroll design type and modified scroll design type were made influenced by the ceramics of Chinese Yuan (元) dynasty. But we can also find out that these kind of expression is shown in the Joseonized skills with inlay that tried to imitate the skills of other countries.

Through these stages of acceptance, white porcelain with inlay has been developed and a certain kind of Korean style materials and ways of expressions came out. Separated branch design type began to show the mixture of tradition and imported factors and a more pictorial and realistic face. Floral design with two lines type is seen on white porcelain with inlay having fixed chronical data (絕對編年資料) and carved letter (銘文), the place where it was found is centered on Gyeonsang-do province (慶尙道) area and its quality is soft quality white porcelain (軟質白磁), different from the hard quality white porcelain (硬質白磁) made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We can say that the time is when the white porcelain kilns was already been changed into official kilns (官窯) mainly producing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of Joseon Dynasty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The white porcelain with inlay of Joseon Dynasty exhibited and improved the Korean feature accepting the foreign factor and drafting it upon traditional technique in aspect of the shape, the material of design; the style of expressions had the position of a class as Joseon White Porcelain. Though white porcelain with inlay was on the decline and disappeared due to the mass production of blue and white porcelain, we can find its meaning in that it shows us the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tide of times, the conversion from celadon centered age to white porcelain centered age among the various ceramics appeared in the 15th century.